강진군보건소, 마을 중심 치매예방교실 재개

내일부터 칠량면 동백마을 · 대구면 수동마을 시작

11월까지 주 1회, '찾아가는 치매예방교실' 운영

강진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이달 11일부터 치매안심센터 접근성이 떨어지는 면 단위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치매예방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치매예방교실'은 주 1회씩 8주간 진행되며, 8월 11일 칠량면 동백마을, 대구면 수동마을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마을을 확대 운영해 11월까지 9개소를 운영할 방침이다.

프로그램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참여하며, 치매예방교육 및 웃음치료, 인지훈련, 운동요법, 공예 및 원예요법 등으로 인지력을 자극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돼 있어 치매 이행을 늦추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오는 12일부터는 매주 수요일 오전 치매안심센터 내에서 운영하는 치매예방 프로그램도 정상 운영돼 치매예방 및 두뇌 건강에 관심 있는 주민들의 참여를 높일 예정이다.

서현미 강진군보건소장은 "지난 2월부터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중단됐던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재개함으로써 농어촌 어르신들의 코로나 블루 극복과 건강한 노후생활에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안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진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순차적으로 프로그램을 정상화하여 현재 치매환자 주간보호 쉼터, 고위험군 인지강화 교실, 치매조기검진(예약제) 사업을 재개해 운영 중이다.

강진군 치매 및 프로그램 등 문의는 061-430-5950~5953,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로 하면 된다.

강진=김영일 기자

곡성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 부담금 최대 100%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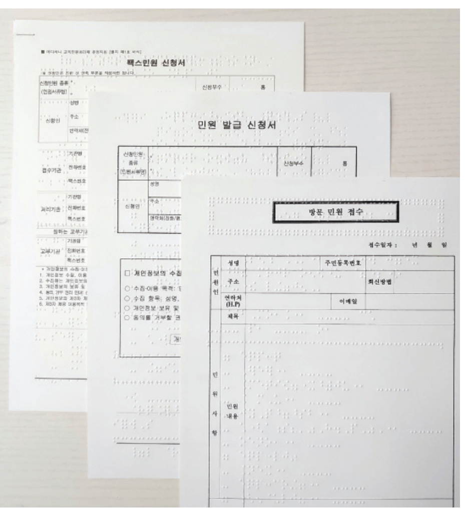
곡성군이 일과 가정 양립 지원 확대 공약에 따라 올 5월부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추가 지원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 소득에 따라 시간당 기본요금 중 15%에서 85%가 정부(국비, 도비, 시군비)에서 지원되고 나머지는 본인부담금이다. 하지만 농촌지역의 경우 평균 소득 수준이 도시근로자에 비해 낮아 본인부담금이 말 그대로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곡성군은 소득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40%에서 100%까지 추가로 지원한다.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75% 이하일 경우 100%, 중위소득 120% 이하는 60%, 중위소득 150% 이하는 50%가 지원되며 중위소득이 150%를 초과하면 4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만 12세 이하 아동이 3명 이상인 가정은 셋째부터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한다.

곡성=김광휘 기자

광주시교육청 민원실, 점자 민원신청서 등 도입



2020 사회적 배려대상자 민원서비스 강화 계획 시행

임산부 · 장애인 우선 창구에 민원인 편의용품 확대

광주시교육청이 10일부터 기저귀 교환대와 유아용품, 3종 점자 민원신청서 등 다양한 편의용품을 확충하고 민원인을 맞이한다.

시교육청은 지난 7월10일 '2020년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민원서비스 강화 계획'을 수립했고, 8월 시행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해당 계획은 교육청 민원실을 방문하는 임산부 · 노약자 · 장애인 · 다문화 주민 등 취약계층에 제공하는 편의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가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점자로 제작된 '민원발급신청서 · 팩스민원신청서 · 방문민원신청서' 등 3종, '임산부 · 장애인 우선 민원처리창구', 유아 대동 민원인을 위한 기저귀 교환대, 물티슈, 기저귀, 면봉 등 유아물품 등이다.

점자 민원신청서는 본청과 교육지원청에 우선 제공하고 향후 활용기관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임산부 · 장애인 우선 민원처리창구'는 일반민원과 전담창구 역할을 병행 담당해 평시에는 일반창구로 운영해 일반 민원인 불편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유아 편의용품은 유아를 동반한 민원인이 서류 작성 시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감안해 마련됐다. 민원실 1일 1회 청소, 2시간마다 환기, 손잡이 알코올 소독, 항균필름 부착 등으로 민원실을 방문하는 질병 면역력이 낮은 유아들의 감염병 예방에도 노력하고 있다.

또 교육청 민원실에서는 근무자를 대상으로 민원 응대를 위한 기초수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문화 학생 · 학부모, 외국인 방문 시 외국어 통역 지원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수어 교육이 빠른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실제로 수어를 사용하는 민원인이 방문하는 경우 이들의 응대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기존에 마련돼 있는 돋보기, 보청기, 휠체어, 알루미늄 목발, 교육청 점자 명함과 안내판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품질과 성능을 유지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현재 민원인 편의를 위해 임용시험 응시 수수료와 상위법 규정 사항을 제외하고 신원 · 학적 · 재무회계 · 학원 등 관련 제증명 수수료와 고등학교 검정고시 응시 수수료, 고등학교 전 · 편입학 배정 수수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임용시험 수수료를 무료로 하고 있다.

장휘국 광주교육감은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직원들의 업무량 및 부담 증가라는 어려움은 있겠지만, 국민의 지지와 신뢰 속에서 광주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민원인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인호 기자

여수특수교육지원센터, 교육 실무사 방학 중 연수

여수교육지원청(교육장 김용대)은 특수교육실무사 방학 중 연수를 지난 2일, 3일 2차례 실시하였고, 오는 20일, 21일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연수는 관내 특수교육 실무사 36명을 대상으로 현장실무능력 및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문제행동 중재 및 긍정적 행동지원,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와 특성을 고려한 지원 능력을 배양하고 안전한 학교생활 지원을 위한 대응능력을 함양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학교 현장 속 다양한 사례 중심의 상황대처 및 예방교육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켈리그라피로 진행된 체험형 연수를 통해 장애학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소통과 힐링의 시간도 마련하였다.

김용대 교육장은 "앞으로도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역량 증진의 기회를 마련하겠다"며,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학교적응 및 안전을 위해 더욱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정선웅 기자